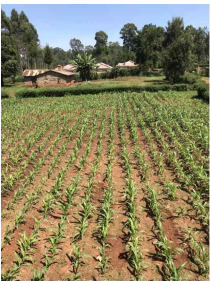




스물두번째 이야기

선하신 손길

[선교지 선교사역③ 선교사 이야기]



일상의 행복

"그 시골에서 뭐하고 지내세요?
만나서 얘기할 사람은 있어요?"

케냐에 있으면서 가끔 안부를 묻는 한국에 계신 분들과 케냐 다른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들

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워낙 성격이 내향적이기도 하고 혼자 있어도 별로 어려움이 없는 편이라, 그리고 아직은 엄마 손이 많이 가는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기에 외로움은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벽에 닭 우는 소리, 새 지저귀는 소리들이 아침을 깨우고, 눈 앞에 펼쳐진 푸른 하늘과 나무,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설거지 했던 시간, 비온 뒤 상쾌하고 깨끗한 공기가 너무 좋아서 폐 속 깊이 숨을 들여 마시는 일들은 지친 일상에 쉼과 위로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처럼 편리함은 없어서 직접 몸으로 수고하는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생일 축하 떡을 직접 만들어주고, 두부도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소소한 일상들이 큰 행복이었습니다.



숨겨진 보물찾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에서 길을 찾아 나서는 크고 작은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가는 일,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하는 일, 아이들이 아플 때 대처하는 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음식을 만드는 일 등등...

첫째 딸 유하가 점차 친구들과 노는 일에 관심이 많아지고 유치원을 보낼 시기가 되었습니다. 살던 곳은 한국 사람이라곤 저희 가정과 연세 많으신 여선교사님 한 분뿐이었기에 외국인으로 다닐 수 있는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살던 컴파운드의 다른 한 집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통학 차량을 본 적이 있었지만 오래전에 봐서 학교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알파벳 R 정도만 생각날 뿐이었습니다. 집 앞으로 통학차가 왔으니 이 동네 근처가 아닐까 싶어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를 찾아 무작정 나갔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너무 막막한데 남편이 우연히 지나가다 봤다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어 보자고 해서 일단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스크림 가게를 지나가다

보니 아주 자그마한 노란 간판에 R로 시작하는 학교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혹시 그 학교인가 하여 간판의 표시대로 골목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그 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 설명을 들어보니 미국인가 캐나다인가의 한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였고 스와힐리어가 아닌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여 외국 학생들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하는 그 학교의 유치원에 입학하여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우리

삶의 작은 일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의 삶의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저의 삶에 함께하심을 확신합니다.

[글쓴이 김미연 선교사]



2010년 온비아에 입학하여 BEE와 첫 만남을 가진 후 2011년부터 BEE Korea 간사로 섬기면서 남편과 만나 결혼 후 2016년 케냐로 파송 받았다. 현재는 본부 사역으로 발령받고 한국에서 사역 중이다. 가족은 남편 권태남 선교사와 첫째 딸 유하(7세), 둘째 딸 새하(4세)가 있다.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선교지  South Sudan



[이동 수단-경비행기]

2011년 독립 이후, 2013년 시작한 내전으로 인해 도로가 개발되지 못해서 각 지방을 가는 수단으로 경비행기가 이용되고 있다. 수도 다운타운에서도 20~30분 정도의 작고 짧은 거리의 곳곳에 구멍 난 아스팔트 도로 외에는 먼지가 풀풀 나는 울퉁불퉁한 흙길이다. 그나마 지방을 가는 흙길도 안전하지 않아 때때로 강도, 약탈, 살인 등의 소식이 들려오기에 대부분 외국인은 경비행기를 이용하고 있다.

BEE 소식

1. 2021년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고 이웃과도 그 친밀함을 나누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17:21).”
2. 매일 아침 8:00! BEE 선교사역을 위한 5분 중보 기도! 114명의 기도의 용사가 날마다 하늘을 향한 기도의 향기를 피우고 있습니다. 함께해요!!!~
3. 2021-2 OBA 하반기 개강하였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열매 맺는 가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